

#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과 <실용 경제> 교과서의 금융교육 내용 분석 : 금융교육 표준안을 중심으로

서 지 수\*

【요약문】 본 연구는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의 내용 체계 및 교수·학습 방법을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학교 금융교육의 변화 및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내용 체계 측면에서 <실용 경제> 교과서는 절반 정도의 내용 요소가 부합하지 않은 반면,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대부분이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자산 관리’, ‘은퇴 후 자산관리’, ‘보험’ 관련 내용 요소 중 일부가 미반영된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도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실용 경제> 교과서보다 높은 부합성을 보였다. 그러나 ‘신용관리와 대출’, ‘합리적 금융생활’, ‘예산’ 관련 학습 활동이 상이하게 구현된 것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실질적인 금융역량 함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학교 금융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금융과 경제생활>, <실용 경제>, 금융교육 표준안, 고등학교 금융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 창동고등학교 교사(suh0507@snu.ac.kr).

## I. 서론

오늘날 급격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활동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졌다(이소연, 2018). 그 기반으로 금융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보편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이미 금융소비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금융교육’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한진수,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금융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학교 현장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와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융합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으로부터 제기된 금융교육 전담 과목의 신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한 요청을 바탕으로 한다.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금융교육은 사회과의 일반선택과목으로서 <경제>의 5단원 ‘경제생활과 금융’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통교과의 교양선택과목으로서 <실용 경제>의 2단원 ‘소득과 소비’, 3단원 ‘저축과 투자와 보험’, 4단원 ‘부채와 신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들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이강현·장경호, 2024; 이소연, 2018; 박형준·한진수, 2018; 허수미, 2017 등).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편성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금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역량의 발달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과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금융교육 담당 교사의 부담감과 전문성 미흡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교사의 교과서 의존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유혜림, 2014). 결론적으로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가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크며, 그 기준으로서 금융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20년 개정 발간한 금융교육위원회의 금융교육 표준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첫 출간된 금융교육 표준안은 국내 최초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교육의 내용체계와 학습 기준을 정립한 지도서로서 학교 금융교육의 기준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2020년에 내놓은 개정 표준안은 사회적 적합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학교 금융교육의 기준으로서 살펴볼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과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조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교육위원회의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과 의의를 살펴보았다(Ⅱ장). 이후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 방법을 소개하고(Ⅲ장),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에 대해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금융교육위원회의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Ⅳ장).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금융교육 교과서의 구성 실태와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Ⅴ장).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과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에 대한 비교 및 분석에 앞서 해당 과목 운영의 지침으로서 각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성취기준을 먼저 개관하고, 두 과목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금융교육은 사회과의 일반선택과목 <경제>의 한 단원(5단원 경제생활과 금융)과 보통교과의 교양선택과목 <실용 경제>의 세 단원(2단원 소득과 소비, 3단원 저축과 투자와 보험, 4단원 부채와 신용)에서 분절적이고 중첩적으로 다뤄져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금융교육 영역의 독립 및 재조직의 과정을 거쳐 사회과의 융합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하였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평생에 걸쳐 안정된 금융 복지(financial wellbeing)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과 금융 의사 결정 능력, 건전한 재무적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교육부, 2022).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는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융환경과 금융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된 금융 복지를 향유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을 통한 균형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단기 효율적인 자산 배분은 저축과 투자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신용 사용과 보험 및 연금을 활용한 위험과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22).

이와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총 4개의 대단원, ‘(1)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2) 수입과 지출’, ‘(3) 저축과 투자’, ‘(4) 신용과 위험 관리’로 이루어졌으며, 구체화된 성취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성취기준

대단원	성취기준
(1)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12금융01-01]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며, 단기와 장기의 관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한다.
	[12금융01-02]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나타난 금융 서비스의 변화된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12금융01-03]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계약(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탐구한다.
(2) 수입과 지출	[12금융02-01] 소득이 수입의 주요 원천임을 이해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구한다.
	[12금융02-02]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구분하고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
	[12금융02-03] 예산의 의미와 예산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금융 생활에서 예산을 수립·점검·평가한다.

대단원	성취기준
(3) 저축과 투자	[12금융03-01] 저축의 경제적 의의와 다양한 저축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12금융03-02] 기본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12금융03-03] 저축과 투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며, 활용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 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를 탐색한다.
(4) 신용과 위험 관리	[12금융04-01] 신용 사용의 결과를 고려한 책임감 있는 신용 관리 태도를 기르고,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신의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12금융04-02] 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 보험 상품의 특징을 비교한다.
	[12금융04-03] 고령 사회에서 노후 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계획을 설계한다.

## 2)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의 교양선택과목으로서 <실용 경제> 과목은 정보화·세계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실천 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금융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교육부, 2015). 사회과의 일반선택과목으로서 <경제>가 경제 현상의 원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상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제지식을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일상에서 당면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위한 돈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위험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사회인으로서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2015).

이와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실용 경제> 과목은 총 5개의 대단원, ‘(1) 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2) 소득과 소비’, ‘(3) 저축과 투자와 보험’, ‘(4) 부채와 신용’, ‘(5) 취업과 창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화된 성취기준은 <표 2>과 같다.

&lt;표 2&gt; 2015 개정 &lt;실용 경제&gt; 성취기준

대단원	성취기준
(1) 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12실경01-01]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 등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
	[12실경01-02] 경제 주체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생활을 파악하고 최저 임금 정책, 정부의 조세와 재정 지출 등이 개인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12실경01-03] 개방 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금리, 물가, 환율 등 경제 지표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 조사를 통해 탐구한다.
(2) 소득과 소비	[12실경02-01] 소득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산과 지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해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태도를 가진다.
	[12실경02-02]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 결정 방법을 탐구하고 정보 활용 및 분석을 통해 전자 상거래 이용 등 다양한 소비 경로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12실경02-0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탐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그 해결 방안과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제시한다.
(3) 저축과 투자와 보험	[12실경03-01]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돈 관리를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12실경03-02] 수익성과 안전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저축과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능력을 가지며, 금융 의사 결정이 자기 책임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 하는 제도를 설명한다.
	[12실경03-03] 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보험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조사 하고 자신의 미래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4) 부채와 신용	[12실경04-01] 과도한 부채가 가계와 국가에 미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부채와 신용의 합리적 관리 방법을 탐구한다.
	[12실경04-02] 현금 이외의 지불 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할부의 특징을 비교하고 지불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다.

대단원	성취기준
	[12실경04-03] 채무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태도를 가지며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있음을 설명한다.
(5) 취업과 창업	[12실경05-01] 직업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사례를 통해 탐구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와 취업 계획을 모색한다.
	[12실경05-02]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근로자 보호 제도, 기업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하고 기업이 정신의 의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12실경05-03] 창업 절차와 창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방법을 조사하고 창업을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주: 금융 관련 단원은 음영 처리하였음.

### 3) <금융과 경제생활>과 <실용 경제> 과목의 특성과 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과 경제생활>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용 경제>과목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과목 모두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두 과목 간 차이 또한 존재하는데, 먼저 기존의 <실용 경제>는 보통교과의 교양선택과목이었던 것과 달리 <금융과 경제생활>은 사회과의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즉 <실용 경제>는 철학, 심리학 등과 함께 생활·교양 영역에 속한 과목으로, 금융 외 영역인 취업과 창업 등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교육에 대해서도 기초 교양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과목 담당 교사도 일반 사회 전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전공 교사가 수업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실용 경제> 과목은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과 경제생활>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설되었다. 따라서 <실용 경제> 과목은 당시의 공식 교육과정 하에서 그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학교 금융교육을 구성하였음에 따라, 그 이후에 나타난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 양상들은 구조적으로 담고 있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진 기존 <실용 경제> 과목이 폐지되고 <금융과 경제생활>이

학교 금융교육 전담 과목으로 새로이 도입되게 된 시점에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이 교과서에도 충실히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 경제> 교과서와 비교해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가 사회과의 학문적 체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금융환경의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의 차원에서 학교 금융교육 질이 제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금융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2.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구성과 의의

2010년 금융교육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의 지침으로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당시 학교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학교 밖 금융교육 역시 그 내용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금융교육 내용의 체계성과 일관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교육의 내용 체계와 학습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지도서를 제공하고자 했다(이종희·이연숙, 2015).

한편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디지털 금융 기술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나타나는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 또한 개정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적합성과 관련성을 강화하고자 2020 개정 금융교육 표준안이 새롭게 발간되게 되었다. 2020 금융교육 표준안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서 장차 더욱 중요해질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둘째, 교육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배치순서 조정 및 중복 내용의 통폐합을 통해 각 내용들이 학생 발달과정에 맞춰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셋째, 한정된 수업시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성취기준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금융감독원, 2020).

이러한 개정 방향을 바탕으로 2020 금융교육 표준안은 학교급별로 총 5개의 대영역, ‘(1) 금융과 의사 결정’, ‘(2) 수입과 지출관리’, ‘(3) 저축과 투자’, ‘(4) 신용과 부채관리’, ‘(5) 보험과 은퇴설계’와 1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급에 해

당하는 구체화된 성취기준을 살펴보자면 <표 3>과 같다.

<표 3>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1) 금융과 의사 결정	합리적 금융생활	[고-Ⅰ-1-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평가한다.
		[고-Ⅰ-1-②] 물가, 금리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이 금융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고-Ⅰ-1-③]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고-Ⅰ-1-④] 금융거래과정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약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개인 재무관리	[고-Ⅰ-2-①]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고-Ⅰ-2-②]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고-Ⅰ-3-①]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Ⅰ-3-②]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2) 수입과 지출관리	예산	[고-Ⅱ-1-①] 예산수립과정에서 기대 수입을 추정하고 항목별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고-Ⅱ-1-②] 예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고-Ⅱ-1-③]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할 수 있다.
	수입	[고-Ⅱ-2-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알 수 있다.
		[고-Ⅱ-2-②] 총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구분하고, 처분가능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한다.
	지출	[고-Ⅱ-3-①]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한다.
		[고-Ⅱ-3-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소비를 평가한다.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3) 저축과 투자	저축	[고-Ⅲ-1-①] 저축 상품과 관련된 세금을 파악한다.
		[고-Ⅲ-1-②]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한다.
	투자	[고-Ⅲ-2-①] 투자정보의 원천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고-Ⅲ-2-②] 금리변동, 인플레이션,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한다.
		[고-Ⅲ-2-③] 자산관리에서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고-Ⅲ-2-④]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4)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관리와 대출	[고-Ⅳ-1-①] 신용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고-Ⅳ-1-②]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고-Ⅳ-1-③] 우수한 신용점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들을 조사한다.
	부채관리	[고-Ⅳ-2-①] 부채상환 방법과 기간에 따라 월부금과 총 소요비용이 달라짐을 이해한다.
		[고-Ⅳ-2-②]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해한다.
(5) 보험과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	[고-Ⅴ-1-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Ⅴ-1-②]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은퇴설계	[고-Ⅴ-2-①]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예상한다.
		[고-Ⅴ-2-②] 은퇴 후의 소득원을 조사하고 생활비 마련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고-Ⅴ-2-③] 연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금의 종류를 조사할 수 있다.
		[고-Ⅴ-2-④]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알고, 기부 의의를 이해한다.

주: 금융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서 선별된 ‘핵심 성취기준’은 음영 처리하였음.

2020 개정 금융교육 표준안은 교육 관련 전문가와 초·중·고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 개정안의 타당성 및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개발되었다. 개정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의 발달, 금융위기의 상시화, 금융 위험의 증가 등 최근에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표준안의 사회적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실제 맥락에서 원활한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금융감독원, 2020). 따라서 2020 개정 금융교육 표준안은 초·중·고 학교급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금융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금융교육 과목으로서 2015 개정 <실용 경제>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의 교과서를 분석 및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금융교육 교과서의 구성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 금융교육에 있어 앞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3.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학교 금융교육 관련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성취기준 해설이 제정됨에 따라 교과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주요한 연구 경향으로 나타났다(최병일, 2025).

최병일(2025)은 4종의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위 구성, 학습 목표 제시 방식, 실생활 연계성, 디지털 금융환경 반영, 보충 및 심화 학습 요소, 참여형 활동 설계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현재 출판된 모든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신규 교과목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경제>,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금융교육의 내용을 다루었던 <실용 경제>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였으며, 교과서 4종 간의 비교에 활용된 분석 틀과 기준이 엄밀한 의미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재웅과 장경호(2025)는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이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활용 학습,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

의 다양한 학습 방법이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간과 경제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용 경제>와 유사하게 2022 개정 교육과정상 사회 교과군이 아닌 교양 교과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용 경제>가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자산 관리 역량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인간과 경제활동>에서 금융 관련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업 탐색과 진로 준비, 지속가능한 발전 등 학생의 삶과 생활에 연계된 지식 체득 및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 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 측면의 차이가 있다.

한편 박영석(2024)은 초등학교 사회과와 실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1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두 교과에 나타난 금융교육의 내용과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금융교육 표준안에 비추어 그 특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금융교육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투자와 위험관리, 신용과 부채 관리 등의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과와 실과(기술·가정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체계적이지 않고 학습 요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의 내용 변화와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가 이에 부합하도록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금융교육의 내용을 다루었던 <실용 경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금융교육 전담 과목으로서 <금융과 경제생활>과 함께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학교 금융교육의 변화와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이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전 단원과 2015 개정 <실용 경

제> 교과서의 금융 관련 단원(2, 3, 4단원) 및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전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을 파악한 후,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 분석 내용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금융과 경제생활>과 <실용 경제>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2025년 11월 기준 인정도서 승인을 받아 출판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총 4종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실용 경제> 교과서는 총 2종이다.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4종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최병일, 2025)를 살펴보면, 모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핵심 성취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고,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활동, 협동학습 등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실용 경제> 교과서 2종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단원별 내용은 교과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서는 토의·토론 활동 등의 빈도 차원에서 차별점이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이 대체로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각 1종을 대표 교과서로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표 교과서 선정 기준을 간단히 제시하자면, 먼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4종 중에서는 2022 개정 <경제> 교과서를 동시 발행한 출판사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경제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만의 체계와 논리를 보다 일관되게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 2종 중에서는 7차 교육과정 <생활 경제> 교과서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를 연이어 발행한 출판사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 변천을 반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 경제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 2. 분석 기준 및 방법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가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분석 범주를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로 구분하였다. 우선 두 과목의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내용 요소 및 핵심 개념,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예비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본 분석 과정으로서 두 교과서에 대해 맥락 단위(context un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 문맥의 단위는 한 행이 될 수도 있고, 한 쪽이 될 수도 있다(이종희·이연숙,

2015). 분석 대상인 교과서를 읽어 나가면서 금융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삽화, 사진 등이 실린 맥락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 정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후 반복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대하여 고등학교에서 실용 경제, 경제 과목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교사를 포함한 사회과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실시하였다.

각 범주별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이 제시하는 내용 체계의 세부 특징을 도출하고, 이와 <금융과 경제생활> 및 <실용 경제> 교과서의 정합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내용 요소와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의 교과서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표 4>와 같이 상/중/하(◎/○/△)로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동일한 표현과 내용으로 반영된 경우 상(◎),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표현과 내용으로 반영된 경우 중(○), 일부 내용만이 부합한 경우 하(△)로 판정하고, 해당 내용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이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고, 이와 <금융과 경제생활> 및 <실용 경제> 교과서의 정합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교과서의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구현된 양상에 따라 <표 5>와 같이 상/하(○/△)로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동일한 목표와 내용의 학습 활동으로 구현된 경우 상(○),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방향의 학습 활동으로 구현된 경우 하(△)로 판정하고, 관련된 학습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제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내용 체계 분석

교육 내용의 범위와 계열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교과서를 통해 상세화된다. 즉,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해당 교과서가 학습

자의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지를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내용 요소와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및 <실용 경제> 교과서와의 부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내용 요소와의 부합성

부합성 기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2015 개정 <실용 경제>
대영역	핵심 내용 요소		
(1) 금융과 의사 결정	금융의사결정	◎ (1)	△ (1)(2)
	의사결정과 책임	◎ (1)	○ (3)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 (2)	○ (3)
	금융환경과 금융서비스	◎ (1)	△ (2)
	금융소비자 보호	◎ (1)	- (2)
(2) 수입과 지출관리	예산관리	◎ (2)	◎ (2)
	소득결정요인	◎ (2)	- (2)
	처분가능소득	◎ (2)	◎ (2)
	합리적 지출	◎ (2)	○ (1)(2)
(3) 저축과 투자	저축 상품	◎ (3)	- (3)
	예금자 보호 제도	◎ (3)	◎ (3)
	금융 상품	◎ (3)	△ (3)
	자산 관리	○ (3)	△ (3)
	투자자 보호 제도	◎ (3)	- (3)
(4)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과 책임	◎ (4)	○ (4)
	부채관리	◎ (4)	○ (4)
	신용 회복 지원 제도	◎ (4)	◎ (4)
(5) 보험과 은퇴설계	위험관리	◎ (4)	◎ (3)
	보험	○ (4)	○ (3)
	은퇴 후 자산관리	○ (4)	△ (4)

주 1) ‘◎’는 동일한 표현과 내용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하고, ‘○’는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표현과 내용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함. ‘△’는 일부 내용만이 부합함을 의미하며, 아예 없는 내용 요소의 경우 ‘-’로 표시하였음.

2) ‘◎, ○, △, -’ 옆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내용 요소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대단원을 의미함.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대부분의 내용 요소가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달리 이전 교육과정의 <실용 경제> 교과서는 절반 가까이의 내용 요소(9개)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내용 요소와 비교하여 부합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 아예 제시되지 않은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요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소득결정요인’, ‘저축 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었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금융피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주체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일반론적인 보호 제도나 피해 구제 방법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전자상거래 개념과 연관지어 전자상거래 상황에서의 피해를 언급하고 있기는 했다. 둘째, ‘소득결정요인’과 관련해 소득의 유형은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근로자의 기술, 교육의 정도, 경제적 조건, 사회적 기여도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셋째, ‘저축 상품’에 대해서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함께 저축 상품의 종류로서 예금 및 적금의 개념 정도만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급한 부분이 있었으나, 저축 상품과 관련된 세금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넷째,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만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융교육 표준안과 비교해 일부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로는 ‘금융의사결정’, ‘금융환경과 금융서비스’, ‘금융 상품’, ‘자산 관리’, ‘은퇴 후 자산관리’가 있었다. 첫째, ‘금융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자체를 위한 정보의 활용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정보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었다. 또한 물가나 금리와 같은 경제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금융의사결정 맥락보다는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가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실물 및 금융 자산과 같은 재무적 특성이나, 가계 구성원 수, 가계 구성원의 특징, 거주 지역, 가치관 등의 비재무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아예 부재했다. 둘째, ‘금융환경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 문서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의미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장단점 정도만 다루고 있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전자화폐, 간편 결

제 서비스와 같은 사례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셋째, ‘금융 상품’의 경우 금융 투자 상품의 유형과 정의는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 정보의 원천과 그에 대한 신뢰 평가는 따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넷째, ‘자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 의사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및 그에 따른 결과가 자기 책임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금융교육 표준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투자 위험의 맥락에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투자 의사 결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고, 투자 원칙으로서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연계해 분산투자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산투자 자체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금융교육 표준안에 비해 일부 내용 요소만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오히려 분산투자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학습 활동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다섯째,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해서 금융 소득, 실물 자산, 이전 소득 등 노후의 획득할 수 있는 소득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국민 연금, 주택 연금, 기초 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은퇴 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념은 제시하지 않았고, 기부의 의의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금융교육 표준안의 ‘은퇴 후 자산관리’과 비교해 다뤄지지 않은 내용 요소들이 있었다. 생애 주기와 관련지어 은퇴 계획의 개념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부양가족의 유무, 학력수준, 생활 습관, 사회활동 등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예측을 위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고, 은퇴 후의 상속 및 증여의 개념과 기부의 의의에 대한 서술은 부재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게 반영된 <실용 경제> 교과서의 내용 요소에는 ‘의사결정과 책임’,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합리적 지출’, ‘신용과 책임’, ‘부채관리’, ‘보험’이 있었다. 첫째, ‘의사결정과 책임’과 관련해 금융 거래에서의 약관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 의사 결정 과정은 자신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재무목표와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와 연계한 장단기 재무계획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수입과 지출 외에 재무상태 점검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서 소득의 원천 및 소득의 안정성, 지출의 항목 및 지출의 변동성, 순자산 등은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셋째, ‘합리적 지출’에 있어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비용 편익 분석의 맥락에서 합리적 선택의 책임과 후회를 다루고 있었다. 한편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욕구, 자원의 부존량, 비용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신용과 책임’과 관련해 신용 관리 방안을 신용 거래 이전 단계, 신용 거래 단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었다. 신용 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개인 신용 정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거래 정보, 경제적 능력 정보, 공공 기록 정보 등을 제시하였고, 신용사용의 비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용 카드 사용의 유의점을 통해 연회비, 이자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다섯째,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방법과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부채의 개념과 채무자의 책임, 가계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여섯째, ‘보험’의 경우 운영 주체 성격, 보험의 목적 대상, 보험금 산정 기준, 보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4대 사회보험과 민영 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두 보험 유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금융교육 표준안의 ‘보험’과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 요소가 있었다. 사회보험의 사회적 역할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대해 민영보험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의 내용 체계에 대해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내용 요소와 각 요소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부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와 비교해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목표 아래 내용의 범위와 수준 측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금융교육의 내실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박형준·김주현, 2023).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실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내용 체계 또한 이에 부합하도록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금융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아예 제시되지 않았으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요소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실용 경제> 과목에서 제한

적으로만 다루어졌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내용 역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비교해 다뤄지지 않는 내용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먼저 ‘자산 관리’,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해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유사한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는 물론 <실용 경제> 교과서가 일부 내용 요소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학습 활동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금융 생활의 기본 축으로서 투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산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는 맥락이 다뤄져야 할 필요가 크다. 이와 관련해 분산투자의 개념과 연관지어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구성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상속 및 증여의 개념과 기부의 의의에 대한 서술이 부재한 것은 사회과 내 법교육 영역<sup>1)</sup>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을 피하고, 계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 계획의 개념은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의 유무, 학력수준, 생활 습관, 사회활동 등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예측을 위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평균 수명의 연장,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 등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금융역량 함양의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의 경우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실용 경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사회적 역할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 재분배 등 민영보험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분야를 포함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보험을 배워야 할 중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단순히 여러 보험의 종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 주체로서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영 보험과 사회 보험의 취지, 장단점의 차이 등에 대한 비교에

1) 2022 개정 <법과 사회>과목에서 ‘[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를 통해 유언과 상속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대한 내용이 학습 경험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수·학습 방법 분석

이어서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금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성취기준은 금융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요건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선별한 것이다(금융감독원, 2020). 선정의 주요 기준은 ‘개념의 위계상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요소’, ‘합리적 금융생활 실천을 위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교과서마다 학습 활동을 칭하는 항목과 명칭이 상이함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 대상을 먼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금융과 경제생활>에서는 ‘더 알아보기, 주제 탐구하기, 생활 속 경제, 교실 밖 경제, 경제야 놀자’를, <실용 경제>에서는 ‘탐구 활동, 토론 활동, NIE 활동, 수행 평가, 창의·융합 활동, 논술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춰 해당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및 <실용 경제> 교과서 속 학습 활동과의 부합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교수·학습 방법과의 부합성

부합성 기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2015 개정 <실용 경제>
대영역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		
(1) 금융과 의사 결정	[고-1-1-③]에서는 가계의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열거하고, 이 과정에서 열거된 특성들을 재무적 특성과 비재무적 특성으로 분류해 보도록 지도한다.	△ (1): <더 알아보기> 투자 성향에 따른 가상 자산 구매 자금 출처  △ (1): <교실 밖 경제>	-

부합성 기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2015 개정 <실용 경제>
대영역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		
		탐구> 비재무적 특성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지출 변화	
	[고-Ⅰ-2-②]에서는 모듈별로 수입과 지출, 저축과 부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요인들을 정리하여 분석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타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재무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해 보도록 할 수 있다.	○ (2): <교실 밖 경제 탐구>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  ○ (2): <더 알아보기> 재무 상태표와 예산 관리의 관계	○ (3): <수행 평가> 나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장기적 재무 계획 세우기
(2) 수입과 지출관리	[고-Ⅱ-1-③]에서는 회소성의 개념을 학습하고, 본인의 버킷리스트 작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탐색하게 한 뒤 작성한 버킷리스트의 필요성, 버킷리스트 중의 우선순위 결정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	△ (2): <탐구 활동> 대학생 K군, 3인 가족의 가장 P씨, 식당 주인 L씨의 수입과 지출 계획
	[고-Ⅱ-3-②]에서는 과시 소비, 충동 소비, 모방 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의 사례를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소비 사례를 탐색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소비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2): <주제 탐구하기> 자신의 지출 내역 분석하기  △ (2): <더 알아보기>	○ (2): <탐구 활동> 자신의 소비 활동 점검하기  ○ (2): <탐구 활동>

부합성 기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2015 개정 <실용 경제>
대영역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		
		쇼핑 중독 자가 진단	비합리적 소비 행태 사례 분석
(3) 저축과 투자	[고-Ⅲ-2-③]에서는 금융 상품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고 집중투자와 분산투자 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하게 하는 모의 투자 게임을 활용할 수 있다. 분산투자는 개별 금융 상품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다는 점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교실 밖 경제 탐구>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게임  ○ (3): <경제야 놀자> 투자 수익왕 게임	○ (3): <탐구 활동> 모의 투자 게임
(4) 신용과 부채관리	[고-Ⅳ-1-②]에서는 체험 학습을 통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 조건의 차이를 조사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이 결정되며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4): <생활 속 경제>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 (4): <참고 자료> 개인의 신용 등급  △ (4): <참고 자료> 개인 신용 등급 평가 기관
(5) 보험과 은퇴설계	[고-Ⅴ-1-②]에서는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가입 주체, 운영 주체, 보상 차이, 보험금 납부 차이, 수혜자와 부담자의 차이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모둠활동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발표하도록 지도하여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찬반식 토론 수업을 진행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 보는 심화 학습으로 확장할 수 있다.	○ (4): <주제 탐구하기> 국민 건강 보험 지급을 제한해야 할까?	△ (3): <탐구 활동> 4대 보험 조사·발표하기

부합성 기준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2015 개정 <실용 경제>
대영역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		
	[고-V-2-②]에서는 노인 빈곤을 주제로 한 기사나 뉴스를 활용하는 신문 활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4): <생활 속 경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 준비 현황  ○ (4): <더 알아보기> 노후 보장을 위한 다층 보장 체계	△ (3): <읽을 거리> 젊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노후 준비 5계명  △ (3): <참고 자료> 기초 연금

주 1) ‘○’는 동일한 목표와 내용의 학습 활동으로 교과서에 구현되었음을 의미하고, ‘△’는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방향의 학습 활동으로 교과서에 구현되었음을 의미함. 아예 관련 된 학습 활동이 없을 경우 ‘-’로 표시하였음.

2) ‘○, △’ 옆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학습 활동이 제시된 대단원을 의미함.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이전 교육과정의 <실용 경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비해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더 부합하도록 구현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과 비교하여 부합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교과서 학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아예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유사하게 제시된 학습 활동은 [고-I-1-③] 성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I-1-③]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는 앞선 내용 체계 분석을 통해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 금융교육 표준안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비재무적 특성을 본문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기에 관련되는 학습 활동 또한 부재했고, 가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활동조차도 제시된 것이 없었다.

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유사한 방향의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가계의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으로 분류해 보는 과정은 없지만, 안정형에서 공격투

자형에 이르기까지 투자 성향이 가상 자산 구매 자금을 구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 가구원 수 및가구 구성에 따른 월평균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비재무적 특성의 개념과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구현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유사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반면,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동일하게 제시된 학습 활동은 [고-V-1-②], [고-V-2-②] 성취기준에서 나타났다. 첫째,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 '[고-V-1-②]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는 앞선 내용 체계 분석 결과 금융교육 표준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활동의 경우 차이가 있었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만 운영 기관, 연령, 가입 대상자와 수혜자, 보험료, 제공되는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에 대해 모듈별로 각각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을 뿐이다. 즉, 사회보험을 민영보험과 비교해 보거나 사회보험의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찬반식 토론 등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학습 활동이 구현되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국민 건강 보험 지급을 제한해야 하는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찬반식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 '[고-V-2-②] 은퇴 후의 소득원을 조사하고 생활비 마련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의 경우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과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습 활동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적립금 등 노후 준비를 위한 5계명, 기초연금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자료가 제시되었음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학습 활동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와 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한편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에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이르는 다층 보장 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실용 경제> 교과서와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모두에서 [고-IV-1-②]

성취기준의 경우 금융교육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고-Ⅳ-1-②]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의 경우 앞선 내용 체계 분석에서 <실용 경제> 교과서가 금융교육 표준안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 활동은 개인 신용 등급 평가 기관명과 홈페이지를 자료로 제공해 개인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쳤으며, 신용 등급 제도의 의미 정도만을 제시하여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담보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조건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Ⅱ-1-③] 성취기준은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 활동으로 구현된 반면, 오히려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아예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고-Ⅱ-1-③]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할 수 있다.'는 앞선 내용 체계 분석에서 <실용 경제> 교과서와 금융교육 표준안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습 활동의 경우 학생 개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직접 점검,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사례에 대해 소비 지출 계획을 짜보거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수립해보는 활동 정도로만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다. 한편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관련하여 제시된 학습 활동이 아예 없었는데, 이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에 따라 이전 교육과정의 비용편익분석 개념이 통합 및 재편성되어 <경제> 과목에만 남아있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대해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성취기준별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부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보다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교수·학습 방법과 정합성이 더 높았다. 개정된 금융교육 표준안은 학생들이 실제 맥락에서 원활한 금융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하에 교과 수업에서 금융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속 학습 활동은 <실용 경제> 교과서와 달리 대부분이 이에 부합하도록 구현되었음에 따라 더

육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가능해졌다는 시사점이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비교해 구현되지 않은 학습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먼저 ‘신용관리와 대출’에서 ‘[고-IV-1-②]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의 경우 <실용 경제> 교과서와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모두에서 금융교육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실용 경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신용 등급 제도의 의미 정도만을 제시하여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구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도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담보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조건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사용은 현재 예산제약의 범위를 넘어선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금융감독원, 2020). 그리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생활에서 신용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 거래 및 대출은 주요한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신상 정보, 금융 거래 정보, 각종 공과금과 이동통신 요금 등의 연체 실적 등과 같은 요인과 그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학습 활동을 통해 신용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에서 ‘[고-I-1-③]에서는 가계의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열거하고, 이 과정에서 열거된 특성들을 재무적 특성과 비재무적 특성으로 분류해 보도록 지도한다.’의 경우에도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동일한 학습 활동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물론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아예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습 경험으로 새롭게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큰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생활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가상 자산 구매 자금을 구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 가구원 수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월평균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비재무적 특성의 개념과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보다는, 개인 또는 가계의 금

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으로 직접 분류해 보는 학습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고-Ⅱ-1-③]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할 수 있다.’의 경우 <실용 경제> 교과서에서는 금융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 활동으로 구현된 반면, 오히려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서는 아예 학습 활동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이전 교육과정 <실용 경제> 과목에서 다루어지던 회소성과 비용편익분석 개념이 통합 및 재편성되어 <경제> 과목<sup>2)</sup>에만 남아있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의 사례 혹은 일시적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서 더 나아가, 이미 금융소비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예산을 직접 수립하여 이를 점검,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현금 관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인으로서 더 큰 규모와 다양한 수입 및 지출로 구성되는 가계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 V. 결론 및 제언

학교 금융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의 금융역량 함양이다. 금융역량(또는 금융이해력)은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의 종합으로 구성되는데(OECD, 2020; Jumpstart, 2006), 금융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함으로써 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금융 거래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줄 알고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며 자신의 금융 목표와 예산을 수립한 후 실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닌다(한진수, 2017).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학교 금융교육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일반선택과목으로서 「경제」

2) 2022 개정 <경제>과목에서 ‘[12경제01-03]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개발한다.’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의 5단원과 보통교과의 교양선택과목으로서 <실용 경제>의 2, 3, 4단원에 분산되어 다뤄지던 학교 금융교육을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서 개발되었다. 학생들의 금융역량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담 과목으로서 <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한 것은 내실 있는 학교 금융교육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학교 현장에 새로이 적용될 시점에서, 실제 활용될 교과서가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와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고등학교 금융교육 교과서의 구성 실태 및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학교 금융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체계 측면에서 <실용 경제> 교과서는 절반 가까이의 내용 요소(20개 중 9개)가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의 핵심 내용 요소에 부합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내용 요소 대부분이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3) 저축과 투자의 ‘자산 관리’, (5) 보험과 은퇴설계의 ‘은퇴 후 자산관리’ 중 일부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구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보험과 은퇴설계의 ‘보험’의 경우 아예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성취기준도 있었다. 각각의 내용 요소에 대해 분산투자 개념과의 연관성,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 예측의 중요성, 보험 선택을 위한 비교의 필요성 등의 차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에 미반영된 내용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도 <실용 경제> 교과서에 비해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더욱 부합하도록 구현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고-Ⅳ-1-②] 신용점수와 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와 ‘[고-Ⅰ-1-③]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는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서에서 구현된 학습 활동 간에는 여전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고-Ⅱ-1-③] 개인과 가계의 예산을 수립, 점검, 평가할 수 있다.’는 표준안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이 아예 학습 활동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각각의 학습 활동에 대해 신용 관리의 중요성,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의 필요

성, 기초 역량으로서 가계 예산 관리와의 연결성의 차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로 구현되지 않은 학습 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수업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의 실행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20 개정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2015 개정 <실용 경제> 교과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는 내용 요소와 학습 활동의 측면에서 높은 정합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설된 금융교육 전담 과목으로서 <금융과 경제생활>을 통해 체계적인 학교 금융교육 실행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렇다면 해당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금융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본래 사회과 경제교육에서도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은 강조되어왔다. 경제 개념을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서에서부터 토론, 발표, 조사, 모의 게임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수업 맥락을 보더라도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태환, 2018). 이와 더불어 실제 금융 경험을 통한 금융역량 신장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정우진·최현자·조소현, 2025; 한진수·장경호, 2022; 김자봉·김정환, 2017; 최현자·조혜진, 2011; 조영석·박송춘, 2009 등)를 고려했을 때도, 학생들이 학교 금융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크다(최윤정·김예지, 2015).

따라서 내실 있는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을 실제 수업 실행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었던 2022 개정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대해 보완하는 한편,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금융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금융 서비스 탐색 활동,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예산 관리 및 투자 시뮬레이션 등의 구체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 세종: 교육부.
- \_\_\_\_\_(2015),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9], 세종: 교육부.
- 금융감독원(202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자봉·김정환(2017),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김재근·김태환·박철용·허균·김경훈(2025),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서울: 천재교육.
- 김태환(2019), 통합사회 교과서의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에 나타난 탐구 활동 분석, 경제교육연구, 26(2), 131-157.
- 박영석(2024), 초등학교 사회과와 실과 교육과정의 금융교육 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31(2), 73-95.
- 박형준·김주현(2023),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주안점, 금융교육연구, 8(1), 1-14.
- \_\_\_\_\_, 한진수(2018),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희망. 경제교육연구, 25(2), 27-60.
- 오영수(2015), 고등학교 실용 경제, 서울: 교학사.
- 유혜림(2014), 사회과 금융교육영역의 교과서 분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117-144.
- 이강현·장경호(2024),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 지식 결정 요인 분석, 경제교육연구, 31(1), 87-107.
- 이재웅·장경호(2025), 고등학교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의 탐구 활동 분석-교수·학습의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연구, 10(1), 51-83.
- 이소연(201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사회과 금융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연구, 71, 49-65.
- 이종희·이연숙(2015),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33(2), 1-20.
- 정우진·최현자·조소현(2025),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금융교육 및 금융거래 경험이 재

- 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자학연구, 36(3), 137-155.
- 조영석·박송춘(2009), 경험적 지식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627-642.
- 최병일(2025),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서 분석과 시사점 고찰. 금융교육연구, 10(1), 85-109.
- 최윤정·김예지(2015),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경제교육-미국 고등학교 금융교육 수업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217-245.
- 최현자·조혜진(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2(4), 55-75.
- 한진수·장경호(2022),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54(2), 69-88.
- \_\_\_\_\_(2017),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2, 25-49.
- 허수미(2017),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금융 관련 단위 특성 분석-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4(4), 157-176.
- Jumpstart(2006),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 OECD(2020),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OECD.

<Abstract>

**Analysis of Financial Education Content in High School  
<Finance and Economic Life> and <Practical Economics>  
Textbooks : Focusing on Financial Education Standard**

SUH, Jisoo\*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anges in school financial education and derive educational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 structure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of the high school <Finance and Economic Life> and <Practical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the 2020 revised “High School Financial Education Standard.” First, in terms of content structure, about half of the content elements in the <Practical Economics> were not aligned, whereas most in the <Finance and Economic Life> were organized in alignment with the standard. Further examin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omitting certain content elements related to ‘asset management,’ ‘post-retirement 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Second, regarding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Finance and Economic Life>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alignment with the standard than the <Practical Economics>. Re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differentiated implementation of learning activities related to ‘credit management and loans,’ ‘rational financial life,’ and ‘budget.’ Teaching-learning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foster students’ practical financial competence. The use of smart devices and financial application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provide financial learning experiences connected to students’ real-life contexts.

**Key words:** <Finance and Economic Life>, <Practical Economics>,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High school financial education, 2022 revised curriculum

원고접수: 2025년 10월 08일      심사일: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2월 12일  
게재확정: 2025년 12월 12일

---

\* Teacher, Changdong High School(suh0507@snu.ac.kr).